

# 요한복음 강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 1강 사람이 되신 하나님(1장)

### 강의의 성격과 목적

1. '요한복음에 대한' 강좌가 아니라, '요한복음 강해' 성격의 강좌.
2. 최대한 본문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듣는다.
3. 그럼으로써, 사도 요한이 밝힌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믿음이 더 온전해짐으로써, 이 책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강좌의 목적이다.

### 요한복음 서론

---

####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책—기록의 목적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서 가장 쉬워서 기독교를 알고자 하는 초심자들에게 권할 수 있는 책이면서 동시에 가장 난해하고 심오한 책이다.

요한복음이 기독교를 소개하기 가장 쉬운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복음전도적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다(요 20:31).

요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이 가장 심오한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사건 위주라기 보다 의미 위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중요한 차이이기도 하다.

---

####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 1.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차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공유하는 공통의 관점에서 벗어나는데, 공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많은 사건을 생략하는 대신,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을 다수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설명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 의미가 풍성하게 드러난다.

요한복음이 생략하고 있는 것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세례받으심, 변화산상에서의 변화되심, 마귀를 쫓아내시는 축사(逐邪), 겟세마네에서의 고뇌의 기도, 마지막 만찬, 감람산 강화 등.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들: 양과 목자에 대한 가르침(10장), 다락방 강화(14~16장),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17장) 등.

## 2. 사건들의 무대 중심과 시간 기록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훨씬 더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몇 년?

공관복음의 기록만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는가를 짐작하기 어렵다. 추측한다면 1년에서 2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 약 3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덕분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세 번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2:13; 6:4; 11:55; 5:1)

---

## 기록자: 사도 요한

[외적 증거] A.D.2세기 이후 기독교 전승은 4복음서를 사도 요한과 결부시켜왔다. 명확한 첫 증언은 서머나 감독 폴리갑(Polycarp)의 제자로서 177년 리용(Lyon)의 감독이 된 이레네우스(Irenaeus)의 증언이다. 그는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의 가슴에 비스듬히 기대앉았던 주의 제자 요한이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된 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내어놓았다”고 전한다.

[내적 증거]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요21:24)

‘사랑하시는 (그) 제자’(요 13:23;19:26; 20:2-10; 21:7, 20-23, 24)

## 요한복음의 서문(1~18절)

요한복음의 서문에는 복음서 전체의 내용이 놀랍게 함축되어 있다. 이 본문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가장 위대한 소개문이다.

---

## 말씀이신 그리스도

### 각 복음서의 시작의 차이

(마태복음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가복음1: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1:1)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마태복음: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주님은 바로 예언의 성취인 메시아의 정통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

마가복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로 시작한다.

누가복음: 이방인 데오빌로라는 인물(가상인물이라면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인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쓰여졌고, 의사이자 역사가로서의 자질을 가진 누가는 시대적 상황을 역사적 사실에 맞추어 정확하게 기술. 가령 “유대왕 헤롯때에”(1:5),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2:1).

## 태초

[창세기 1:1과 비교되는 장엄한 시작]

(요한복음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1의 '태초'는 창세기 1:1의 '태초'보다 먼저다.

예수 그리스도와 시간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이 존재하기 전,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요 17:5,24).

## 말씀이신 하나님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설명하고 드러내시는 분이다.

J.B.Phillips의 번역: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표현하셨다." ("At the beginning God expressed himself. That personal expression, that word, was with God, and was God, and he existed with God from the beginning.")

(골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요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 설명하다. 펼쳐 보이다.

아더 핑크, "믿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나은, 보다 깊고 온전한 지식에 이르고자 한다면, 그는 성경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공부해야만 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입에서 나간 말(말씀)은 행해진 행동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곧 빛이 있었던 것 처럼(창 1:3).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요 10:30).

##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1)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 '~을 향하여'

A.T.Robertson,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잠 8:30)

##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말라!

---

## 생명이신 그리스도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요 14: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 11:2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타락한 인간은 본질상 죽어있는 존재이며, 이 생명을 필요로 한다. → 거듭남, 영생

(요 3:3)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 10:10)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생명, 영생: 요한복음에서 이 개념들은 ‘양’보다 ‘질’에 강조가 있다. 생명의 질, 영적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리킨다.

---

## 빛이신 그리스도

(1:4b~5)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8:12)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은 빛을 잃었고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요 9).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의 탁월하심을 보게 한다.

(고후 4: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눈을 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빛에 대한 세상의 반응]

저항: 맹인인 세상은 빛을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요 3:19~21).

[재창조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소개도 천지창조를 떠올리게 한다.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4:6)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하시매] = 장막을 치(고 거하)시매 → 하늘의 성막(계 7:15; 15:5; 21:3)

(헬) skenow 거하다

(히) shakan 거하다

(히) mishikan 성막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구약 쉬키나의 완성이고 성취다(출 40:34~36).

쉐키나(shekinah):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 광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구름 같은 현상으로 드러났던 쉬키나의 모든 상징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주님은 구약의 쉬키나의 성취이자 실체이며 완성이다.

[하나님의 성품: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 인자와 진리(성실)

(시 25:10) 여호와와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은혜(헤세드): 언약의 사랑,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진리(에메트): 틀림없음, 분명하고 정확함, 확고부동함, 성실함.

(1:16)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이며, 눈이 떠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며, 그 영광의 충만한 상태에서부터 그분의 한없는 인자와 성실하심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16절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하는 수고를 해야 물을 먹는다는 뜻이라기 보다,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이 밖으로 솟아나오고 터져나올만큼 충만하고 충만해서 그냥 '옆에 있기만 하면'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성육신은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비하)이지만, 요한복음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부른다.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온전하게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낮아지심의 극치인 십자가도 '영광'의 관점으로 제시한다.

## 세례 요한의 증거(1:6~8,15,19~34)

### 세례 요한의 등장

-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년의 침묵을 깨고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등장한 선지자
-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1:6)
-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1:8)
- 세 가지 부정

- 그리스도가 아니고(1:20)
- 엘리야도 아니며(1:21)
- ‘그 선지자’도 아니다(1:21; 신 18:15,18)
- 한 가지 긍정
  -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1:23; 사 40:3).”
  -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면, 요한은 소리다. 소리는 말씀이 표현되는 도구일 뿐이다.

## 요한이 준 세례의 의미

-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의 의식.
- 요한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진 종교적 특권을 부인하는 행위였다. 할례 받은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세례를 받는 것은 종교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행위였다.
- 요한은 세례주는 권위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 대답을 주기보다 ‘내가 주는 세례는 아무 것도 아니며 너희 중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 서계시고 그가 내 뒤에 오실텐데, 나는 그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모든 관심을 주님께 돌린다.

##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1:29)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36)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 ‘하나님의’ 어린양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제공하시는 어린양(창 22)
2. ‘어린양’=유월절 어린양(출 12:3)
3. ‘세상 죄를 지고 가는’ = 속죄일의 희생양(레 16:21~22): 두 마리의 속죄일 염소 중에서 한 마리는 속죄를 위하여 제단에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백성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여 그 염소를 지정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끌고 가서 인적이 없는 곳에서 놓아 준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지고서 광야로 보내진 염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제거하셨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4. 이사야의 예언: (사 53: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5.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 ‘어린양’이라고 주님을 표현한 것은 거의 30회에 이른다.  
 (계 5:9)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 7:10)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

(1:33)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다.

(요 20: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행 2:33)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약에 약속되었던 성령님을 받으사 부어주셨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은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세례로 마쳐진다. 성육신, 율법의 의를 성취하고 사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세례를 베푸심,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영원히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신 구속사적 사건들이다.

##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1: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 전능자의 부르심(1:35~51)

### 제자로 부름을 받은 다섯 사람의 이야기

- 세례 요한의 두 제자(안드레와 요한?):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고('그의 말을 듣고' 1:37)
-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1:41)
- 빌립: 예수님의 직접적 부르심을 통해서('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1:43)
- 나dana엘(바돌로매): 빌립의 전도와 주님의 직접적 부르심을 통해서 (1:45,47)

### 주요 요점: 이 예수는 누구인가?

- 세례 요한의 증거: '하나님의 어린양'
- 안드레의 증거: '메시아'
- 빌립의 증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 무시되고 잊혀진 축복(1:10~13)

창조주요, 왕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피조물된 그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빛이 왔지만 세상은 그 빛을 볼 능력이 없다.

세상은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을 미워했다.

그러나 그 빛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시되고 잊혀진 생애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다.